

요세바 고도부키에서의 시공간과 로컬리티의 변화*

조 현 미**

The Changes of Timespace and Locality in the Yoseba, Kotobuki*

Jo, Hyun-Mi**

요약: 요세바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면서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국가 혹은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

요세바 고도부키라는 지역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다.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부키 지역은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 시기를 거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되어갔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도야경영자들은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고도부키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세바 고도부키에 있어서 로컬리티 변화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요세바, 고도부키, 도야, 시공간, 로컬리티

Abstract: The most direc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Yoseba Kotobuki was the end of World War II. As city rebuilding projects began vibrantly overlapping, the vitalization in Kotobuki was adopted by the laborers coming in from various parts throughout of the country. Just as the period of economic revival from the special demand created by the Korean War got underway, the aftermath of the worldwide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oil crisis had a direct effect on even the labor market. Moreover, as the vitality of the labor market gradually fizzled out from th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the burst of the economic bubble, the labor base that had once been the pillar of the Japanese economy began to age and could no longer perform this role. As these aging laborers came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the doya managers began repairing the doya and Kotobuki began to change again.

The historical times which affected the changes in Yoseba Kotobuki's locality are in the lives of its members—the laborers—and the times themselves, which operate on the micro level; however, in those times, the national and the global time of the nation-state interact and are linked in multiple layers.

Key Words: Yoseba, Kotobuki, doya, timespace, locality.

1. 서론

한 시대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끊임없이 로컬과 내셔널(국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동되어 왔다. 최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진전과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한 이동의 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간과 트랜스로컬리티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구촌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 지구적 상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하는 시도라고 한다면(이유혁, 2015), 실제로 역사적으로 로컬리티의 형성과 변화는 크건 작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시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적인 집합과 융합의 산물로서의 로컬리티(장세용, 2014)를 보다 관계적이고 과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매시(Massey, 1991)의 로컬에 관한 논의는 설득력이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3286)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mjo@knu.ac.kr)

있다. 로컬 대 글로벌의 변증법적 관계와 관련한 매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글로벌한 것은 로컬 한 것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로컬리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컬이 그 경계 바깥의 어떤 것들과 연계되어있음에 유념해야하고, 로컬적인 것의 형성과정에 글로벌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위 ‘글로벌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로컬과 장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각 장소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관계와 사회적 과정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컬리티인 것이다(Massey, 1994). 다시 말해 장소는 원인이나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내재적 특성이 아니라 외부적 관계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매시의 주장에 따르면, ‘로컬한 것’이라고 정의되는 범주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와 그 내부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교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장소감’이라는 개념은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특정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역사적 흐름의 상호역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소란 더 이상 영토에 묶여 있거나 범주적인 것이 아닌 일군의 사회공간적 관계의 조합과 일치하며, 사회공간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 특정 공간 내에서 분리되어 형성될 수 없다(린다 맥도웰, 2010)는 점에서 주변지역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조현미, 2013), 지역/공동체에서 지역주민들 자신이 속해있다고 느끼는 특이한 장소감은 그 장소의 구체적 역사 및 온갖 종류의 동시대적 변화의 충격이 복잡하게 조합된 결과물(임승연, 이영민, 2011)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공간에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로컬공간은 장소와 관련한 역사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의 동질성과 외부와의 차별성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로컬리티)이 인식될 수 있는데, 내부의 동질성은 외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한 지역은 전 지구성을 떨

수 있다(조현미, 2013, 495).

한편, 소자(Soja)는 공간을 물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체로 보고 사회적 산물인 공간은 그 내부에서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오늘날 세계화/지방화 과정이 공간을 매개로 작동하는 자본, 국가, 계급 등을 통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틀로서 공간정치 경제학의 역할을 제시했다(류지석, 2009, 24).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인 공간에 사회적 산물로서의 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조직화하며 형상화하는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을 물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정신적 공간의 세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사회적 공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는 집단과 개인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환경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망과 줄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외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공간은 인간의 일상적 삶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집단적 생산과 관리, 지배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을 함축함을 의미하며(류지석, 2010, 47), 이는 공간의 문제이면서 또한 공간에 작용하는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로컬리티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역사적 시간은 로컬 구성원의 미시적 삶의 시간에 한정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로컬리티를 생성하는 시간은 내셔널 시간 및 글로벌 시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며, 거기에는 미시(micro)시간은 물론이고 중간(meso)시간, 심지어 거대(mega)시간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장세룡,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시의 ‘글로벌 장소감’의 인식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横浜市)의 고도부키(寿)¹⁾라는 도시변방의 한 로컬공간을 사례로 글로벌/내셔널 한 역사적 흐름이 고도부키의 구성원과 경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출되는 로컬리티의 시공간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도부키는 도쿄도(東京都) 산야(山谷)지구, 오사카(大阪)의 아이린(あいりん)지구와 더불어 속칭 일본의 삼대 요세바(畜産場)²⁾로 불리어지고 있다. 요세바란 상용적인 고용관계 이외의 임시적·계절적·일용적 고용노동력이 일상적·집중적으로 거래되는 장소이면서(조현미, 1998, 127), 노동자들의

숙소인 도야(ドヤ, 간이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다.³⁾ 그러므로 요세바는 도야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도야가(ドヤ街)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요세바는 도야가이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동자들과 노숙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장소인 동시에 일용직노동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매개로 구직자와 취업알선업자(手配師), 숙박업자와 요식업자, 노숙자와 사회활동가 등의 다양한 인간행위가 교류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세바를 ‘일용직노동자가 노동시장과의 관련으로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취업·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함께 크게 3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1992년에서 1997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수차례 고도부키를 방문하여 지역경관을 관찰하였고, 지역주민(노동자와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⁴⁾ 두 번째는 2012년 2월 23일에서 25일까지 2박 3일간 도야를 리모델링한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지역복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5년 2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고도부키를 방문하여 경관변화 관찰과 지역복지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세 차례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헌자료로는 일본 요세바학회의 학회지 「요세바」 창간호(1988년) 부터 18호(2005년)까지와 학회 홈페이지, 요세바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구지역의 태동과 형성과정은 세리자와 이사무(芹沢勇 1967)와 다시로 구니지로(田代国次郎, 1966)의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세리자와의 보고서는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고도부키 일대의 슬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總務局에서 시행한 것으로,⁵⁾ 지역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의 현황을 기록한 거의 유일한 공식문서이다. 같은 시기에 도시의 복지문제에 관한 다시로의 연구 역시 도야가와 슬럼의 실태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양씨의 연구는 고도부키에 관한 지역연구의 토대라고 볼 수 있다.

2. 요세바 고도부키의 개관

고도부키는 JR선 이시가와초(石川町)역을 사이



그림 1. 고도부키의 위치

에 두고 차이나타운이 있는 모토마치(元町)의 반대편, 나카무라천(中村川)을 따라서 도보로 약 5분의 거리에 있으며, 요코하마시의 중심가인 가나가와현 청사(神奈川県庁舎)를 비롯한 관청가에서 도보 30분 이내의 도심부에 인접한 불량주거지구 즉 점이지대에 위치한다.

그런데 고도부키지구의 면적과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1980년대 중반에 간행된 「고도부키지구 센터 자료(寿地区活動関係資料)」⁶⁾와 1992년 「(재)고도부키초 근로자복지협회(財)寿町勤労者福祉協会」 자료에 의하면 300m²의 좁은 면적에 90채의 간이숙박업소가 늘어진 약 6,500명이 숙박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였고, 2014년도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의 자료에는 120채 이상의 간이숙박업소에 약 6,300명이 숙박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도부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NPO법인 사나기다치(さなぎ達) 홈페이지에서는 200m×300m의 면적에 120채의 간이숙박업소, 6,500명 전후가 숙박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면적을 알 수는 없으나 2014년도 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에서 제공한 고도부키 안내도에서의 고도부키지구의 범위는 1992년도에 고도부키초 근로자복지협회가 제공한 안내도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고도부키지구라고 인식되고 있는 공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자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전후 복구사업과 노동시장의 형성

고도부키 일원은 원래 오오카천(大岡川)과 나카무라천(中村川) 하구(河口)의 ‘요시다신텐(吉田新田)’이라고 불리던 매립지에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던 ‘미나미히도즈메누마(南一丁目沼)’라고 불리던 습지였다. 그런데 1859년 개국(開國)과 요코하마 개항으로 인하여 요코하마가 관동지방 유일의 외국무역거점이 되면서 1873년(明治6년)에 마지막으로 매립되었다. 새로이 매립된 곳은 ‘매립지 7개 마을(埋地七ヶ町)’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곳은 목재상, 도매상, 향만노동업자 등이 모여 있던 곳으로 마츠카게초, 고도부키초, 오우기마치, 오키나초(翁町), 후로초(不老町), 만다이초(万代町)등의 지명이 붙여졌다(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 2014, 13). 나카무라천 연안은 일찍부터 향만노동을 중심으로 요세바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관동대지진 후 3년이 지난 1926년 3월, 호리와리천의 제방건설이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찾아온 조선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후일 고도부키의 도야가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高橋徹, 1998, 69-70).

한편, 1945년 대공습으로 황폐지가 된 도시의 재건사업이 전개되면서 전국에서 토목·건축 관련 노동자들이 대도시 건축현장으로 몰리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일본 최대공업지대인 케이힌(京浜)공업지대의 일각으로 1900년대 초기부터 도쿄전기회사(東京電氣, 현재 도시바(東芝)전기회사), 니혼코칸(日本鋼管), 아지노모토(味の素)공장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인접해있는 요코하마시에 미군정 사령부가 설치됨으로서 요코하마항구는 원조물자의 유입항 역할을 하게 되었고,⁷⁾ 이에 따라 물자수송에 필요한 향만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런데 폐허가 된 땅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1945년 10월 6일, 고도부키 일대가 연합군에게 접수되면서 일제히 추방당했다가 1956년 접수로부터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도야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당시에는 패전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으로 실직자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후 제대한 군인들과 해외로부터의 귀국자들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가 창출된 상황에서⁸⁾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대혼란기였으므로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각지

로부터 노동자가 대도시로 몰려들었고, 요코하마에도 그에 따른 직업소개소 등의 관련기관과 부대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게 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정규의 직업소개기관 뿐만 아니라 이른바 ‘노무공급사업자’나 ‘테하이시(手配師)’라고 하는 취업알선업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소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공공직업소개소 일대였으므로 패전 당시 직업소개소(職安労働出張所)가 위치하고 있었던 사쿠라기초(桜木町)는 자연스럽게 향만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노동자마을이 되었다.⁹⁾ 이곳은 일자리의 알선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숙소를 구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노숙장소이기도 했으며, 주둔군의 잔반으로 만든 죽과 같은 식자재가 거래되는 곳임과 동시에 구제의류를 걸어놓고 파는 길거리 장터의 역할도 했다. 극단적인 경우, 노동자들은 서로 입고 있던 옷을 교환 매매하기도 하였으며, 불법노동시장(闇労働)도 형성되었다(芹沢勇, 1967, 5).

4. 한국전쟁 특수와 일본경제의 부흥

1) 수상호텔의 탄생과 재일한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기회복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⁰⁾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特需)’는 노동자집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사쿠라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일용노동시장은 성황을 이루어 전국에서 5위 안에 들 정도였다(芹沢勇, 1967, 5).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로 인하여 기존의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생활 인프라의 부족은 심각하였다. 사쿠라기초(桜木町)와 노게지구(野毛地区)에는 슬럼이 형성되었고(山本薫子, 2008, 12), 이 일대의 숙박시설이 극단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형선박을 개조한 간이숙박업소로, 이른바 ‘수상호텔’이었다. 수상호텔은 선박을 개조하여 선창의 중앙에 통로를 만들고 양측으로 침대를 배치한 것으로, 한 침대 당 담요 2장 정도를 대여하여 1박에 10엔의 숙박료를 받았다. 이러한 형태의 숙박시설은 처음에는 요코하마시 사회사업협회가 운영하였으나 곧 민간업자에 의한 것

들이 나타나게 된다. 민영의 것들은 갑판에도 지붕을 만들어 수용인원을 늘리려하였다. 이렇게 수상호텔은 열악한 시설에 수용인원만 늘리려고 한 것들이 많았고 위생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외관적인 문제와 함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으로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芹沢勇, 1967, 5-10; 조현미, 2000, 144). 일용직노동자의 집중과 그에 따른 숙사의 부족, 부대설비의 열악성은 전염병의 발생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¹¹⁾, 1951년 1월 22일에는 수상호텔의 전복사건마저 발생하였다.¹²⁾ 세리자와는 1959년까지 사쿠라기초 일대에 있었던 6척의 수상호텔 경영자를 조사했는데, 6명 중 4명이 林鐘珠, 金蓉權, 金登子, 李泓의 한국식 이름으로 되어있고, 다른 2명은 吉田와 森田이라는 일본이름이었다. 전복사건을 일으켰던 선박의 경영자도 당시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昭和26年 1月 22日 號外, 동 23日 記事)에 의하면 ‘제3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芹沢勇, 1967, 13; 조현미, 2000, 144). 이런 점을 볼 때 수상호텔 경영자 중 적어도 반수 이상은 재일한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사카의 ‘아이린(あいらん)지구’ 혹은 도쿄의 ‘산야’ 등의 다른 요세바와는 달리 고도부키의 도야 경영자는 지금도 대부분이 재일한인으로, 이것이 고도부키의 간숙박업소 경영이 민족산업으로 성장하는 시발점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다른 요세바와 달리 사쿠라기초에 직업 소개소가 있었던 시기부터 고도부키 일원에 재일한인이 많았던 이유는 이 지역의 입지적 특색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요세바 혹은 고도부키와 관련한 많은 문헌들에서 이곳에 재일한인이 많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배경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케이힌 공업지대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전시에 군수산업에 매진하였고, 이곳으로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노동자들과, 식민정책으로 피해화된 한반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선인 노동자들이 군수산업지대 일원에서 막노동과 고철수집으로 생계를 영위하면서 집주지역을 형성하였다는 점¹³⁾, 그리고 해방이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잔류한 재일한인들이 지금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수상호텔은 외관상, 위생상 그리고 화재의 위험 등의 문제로 주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민영의 것은 지나치게 낡은데다가 배설물은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내고 숙박자들의 세탁물이 배 위의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가나가와현은 하천법과 여관업법, 요코하마시는 항만법 위반에 의한 공유수면 불법점거로 보고 1959년 7월 말을 기하여 철거권고를 한다. 그 결과 그해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이 현장해체로 철거되었다(芹沢勇, 1967, 13; 조현미, 2000, 144). 그러는 사이에 요코하마시 민정국의 알선으로 전체 약 550명(30세대 97명, 단신 452명) 중에서 12세대 49명, 단신 28명, 계 77명이 공공시설이나 민간숙박소로 옮겨졌다(芹沢勇, 1967, 14)¹⁴⁾. 그러나 항만노동자의 수요는 변함없이 증가추세에 있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줄만한 육상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2)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고도부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경제의 전성기, 즉 진무경기(神武景氣)와 이와토경기(岩戸景氣)는 패전으로 피폐화된 일본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의 초대 왕인 진무천황 이래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의 호경기라하여 이름 붙여진 진무경기는 1954년 12월부터 1957년 6월까지 한국전쟁에 출병한 미군의 보급물자 지원, 파손된 전차와 전투기수리 등의 이른바 ‘조선 특수(朝鮮 特需)’로 인한 일본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칭하는 말이다. 이 호경기로 일본경제는 전쟁 전의 최고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회복되어 1956년의 「경제백서」에 ‘더 이상 전후(경제상황)가 아니다’라고 기재 될 만큼 복구되었고 호경기의 여파는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1956년 말, 경기가 대폭 후퇴하였다가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으로 다시 고도경제성장시대의 호경기를 맞이한 1958년 7월에서 1961년 12월까지의 이와토경기로 인하여 일본의 중산층이 증대하고 대량소비사회가 도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호경기의 주역으로서 산업구조의 최말단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원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진무

경기와 이와토경기 기간 동안 고도부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노동자들은 각성제로 졸음을 쫓아가면서 항만노동에 종사했다(高橋徹, 1998, 72).

1956년 고도부키 일원은 미군의 접수지에서 해제되었고, 1957년에 공공직업소개소도 사쿠라키초에서 고도부키초로 이전하면서(寿生活館, 1995)¹⁵⁾, 일용직노동자들의 이동과 함께 고도부키 일대에도 숙박업소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1956년부터 시작된 고도부키 일대의 도야건설은 1960년에 60여 채로 파악되었으나 1963년에 81개소의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1967년에는 83개소로 늘어난다(요코하마시 건설국). 이 가운데에는 이전에 나카무라초에서 도야를 경영했던 제일한인파 그 연고자뿐만 아니라 수상호텔의 철거¹⁶⁾로 인한 호텔경영자의 도야건축도 많았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런데 고도부키에 만들어졌던 도야들은 건축기준법의 인가를 받은 곳이 전체의 36%밖에 되지 않았고, 정식수속을 밟았다하더라도 준공검사 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인원을 증가시킨 곳이 많아 문제가 되었는데, 수용인원의 과밀화뿐만이 아니라, 통풍·채광의 악화, 화장실과 욕실의 부족, 숙박자의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노동력 유지의 저하, 화재 등 재해시의 희생자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컸다(조현미, 2000, 147).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야는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일용직노동자의 수요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급증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요인이지만, 그와 함께 항만노동이 가능한 통근거리에 있으면서 매립지로서 미군에 접수되었다가 풀려 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으로 인한 낮은 地價가 호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불법적인 증축으로 수용인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숙박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건축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1956년에서 1964년까지 건축기준법 위반과 그에 대한 처치건수를 보면 <표 1>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건축은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서 그 후의 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도 고도부키지역의 숙박업소는 욕실이 없이 침대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방이 대부분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호경기로 고도부키에는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집중하였는데, 1960년대 말의 기록에 의하면 요코하마시의 도야 노동자의 경우에는 도쿄나 오사카의 도야 노동자에 비해 체력적인 면에서도 우수했다고 하며 구인측에서도 이 지역의 노동자는 좋은 일손으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직업소개소나 중간 알선업자를 통하지 않고 구인측과 직접 연결하여 일자리로 가는 ‘직행’ 노동자가 많은 것도 1960년대의 고도부키의 특징 중 하나였다(田代 匡次郎, 1966, 30-31). 도쿄올림픽 이후 도쿄에서는 일의 양이 줄어들었고 그에 대신하여 1970년 오사카에서 개최되었던 일본만국박람회¹⁸⁾로 많은 노동자가 이동하였지만 건축현장 등 다른 일용직 직종과는 달리 항만노동은 취업현장이 일정하였으므로¹⁹⁾ 고도부키는 구직과 구인을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장소로서의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山本薰子, 2008). ‘단신 남성노동자들의 거리’인 요세바 고도부키가 가족들의 공간으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68년에 약 7,500명의 거주자 중에서 어린이의 수가 약 1,000명으로(山本薰子, 2008) 정점을 이루었다. 하지만 1969년에는 중학생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족세대가 251세대, 14세 이하 아동 수가 505명으로(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 2014) 가족세대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만들어진 보육소는 현재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역할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간이숙박업소의 종업원과 복지관계자,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치회도 발족하였다.

표 1. 건축기준법 위반처치상황

	1957~1960	1961~1964
공사중지명령	9건	11건
시정명령	9	16
고발	10	8
벌금	6	1
경고	0	7

출처 : 芹沢勇, 196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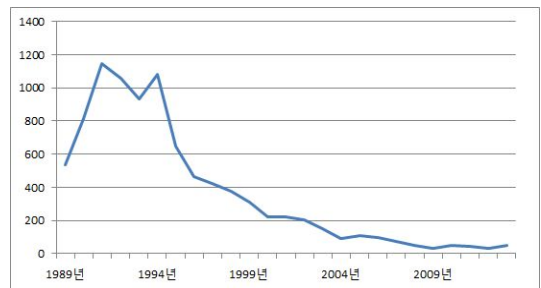
5.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와 외국인(한국인)노동자의 증가

197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도부키의 노동시장도 침체를 맞이한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방박람회 붐이라고 할 정도로 각 지방에서 다양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요코하마에서도 요코하마시제(横浜市制) 100주년, 요코하마 항 개항 13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3월25일부터 191일 간 요코하마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준비를 위하여 고도부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했지만, 노동자들은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노동의 최전선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외국인노동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高橋徹, 72).²⁰⁾ 그리고 1987년, 고도부키에 일본 최초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인 ‘가라바오회’가 만들어졌다²¹⁾.

고도부키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로, 이는 선원들을 통해서 요코하마 항구에서 가까운 노동시장의 존재가 필리핀, 태국 등의 아시아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선원들이 단기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있다(山本薰子, 2008). 한편 한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88올림픽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寿·木曜・パロールの会, 1989), 이는 1989년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전면자유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해외여행자유화는 여행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객의 증가는 물론, 취업을 위한 노동 이주자의 증가도 초래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본은 외국인에게 단순노동을 위한 사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대개의 경우 관광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지, 사증이 만료되는 3개월 마다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고도부키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으며, 같은 동향 출신자가 모여 동향자간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정보와 기회에 접촉할 수 있는 장소였다. 특히 한국인노동자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이 경영하는 도야와 노동자 식당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말을 몰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한

국인노동자가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인종업원이 고용된 식당이 등장했고, 한국 식자재점, 잡화점, 한국가정요리식당, 술집,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이 연이어 들어섰다(山本薰子, 2008).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노동자 대상 직종의 증가는 반드시 고도부키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친구와의 만남이나 쇼핑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한국인들이 고도부키를 방문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십여 차례 고도부키를 방문·조사한 결과, 당시의 도야들은 대부분이 개축되어 비즈니스 호텔화되어 있었으며 주로 식당이나 술집인 1층 점포의 대부분은 재일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우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고도부키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경영자인 재일한인과 친척관계 혹은 지인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재일한인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고도부키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재류자격은 대개가 ‘관광’ 혹은 ‘친척방문’이었다. 이러한 자격으로는 당시에는 15일간의 체재만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균 2~3년 정도 장기체류하면서 일하고 있었다(조현미, 2000, 147). 재일한인과 한국인노동자와의 관계는 한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희박해져갔으며, 고도부키는 재일한인과 한국인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와 관계를 가진 ‘사회적 공간’으로 분리되어 갔다. 한국인노동자에게 있어서의 고도부키는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자들이 한정된 좁은 공간 내에서 취업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직업소개와 자녀문제, 생활문제 등



(출처: 요코하마시건강복지지국 생활복지부, 2014)

그림 2. 고도부키초의 외국인 인구 추이

의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한국인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993년에는 한국인 교회도 세워졌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불황으로 인한 요세바기능의 약화로 외국인노동자들은 대부분 떠났고, 기존의 고령화된 노동자들만 남게 되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수도 현저히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국인 노동자가 주로 가는 술집이 남아있고, 반찬가게에는 젊은 한국인여성이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고령화, 복지의 거리로 변화

1980년 말까지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장기적인 불황기로 접어들었고, 그 영향은 직접적으로 요세바의 노동자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직업소개소에는 새벽 6시 15분, 문이 열리는 시간보다 몇 시간 전부터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자하는 노동자들로 붐볐지만 경기조절책의 최말단에 위치한 일용직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날이 이어졌고, 숙소는커녕 그날 먹을 식량마저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준비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늘어선 줄은 길어져만 갔다. 요세바노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아부레지옥(溢れ地獄, アブレ地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부레지옥은 사회의 최하계층을 다시 세분화하고 계층화시켰다. 즉, 일용직 노동시장에서도 그나마 노동능력이 더 있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 노동자나 고용주와의 관

계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아부레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같이 고도부키 내에서도 계층구조가 현재화(顯在化)되어 갔다. 이렇게 고도부키는 노동시장의 쇠퇴로 구직자는 많으나 구인은 거의 없는, 일용노동력 고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山本薫子, 2008, 22),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되어 갔다. 2013년 현재 고도부키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일본 전국(25.1%)과 요코하마시(21.6%)의 두 배 이상인 50.9%이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 장애자 369명 중 79.9%가 60세 이상이었으며, 그 중 43.1%가 육체노동 및 노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체 장애자이다. 그리고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신 남성 고령자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육체노동과 요세바에서의 불규칙적이고 비위생적이며,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²²⁾ 한때는 ‘노동자의 거리’였던 고도부키는 ‘복지수요가 높은 거리’로 변모해 갔다.

한편, 일본 전국적으로 요세바 노동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2002년에 시행된 ‘노숙자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²³⁾에 의거하여 ‘일정한 거주지를 갖지 못한 자는 생활보호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고도부키에는 생활보호자 수가 급증하게 된다.²⁴⁾ 고령자와 장애자의 증가는 개호시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장애를 가진 고령자 수급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야들은 건물을 개축하기 시작했으며 엘리베

표 2. 고도부키의 고령자 추이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0세이상(명)	3703(210)	4170(304)	4320(397)	4328(459)	4327(390)	4388(389)	
내역	남성	3584(197)	4015(290)	4184(381)	4180(432)	4186(366)	4257(365)
	여성	119(13)	155(14)	136(16)	148(27)	141(24)	131(24)
65세이상(명)	2604(122)	2913(174)	3000(232)	3023(276)	3112(244)	3219(241)	
고령화율	41.1%	45.5%	45.6%	46.4%	48.4%	50.9%	

() 내의 수는 나카구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고도부키지구에서 숙박하고 있는 수
출처: 요코하마시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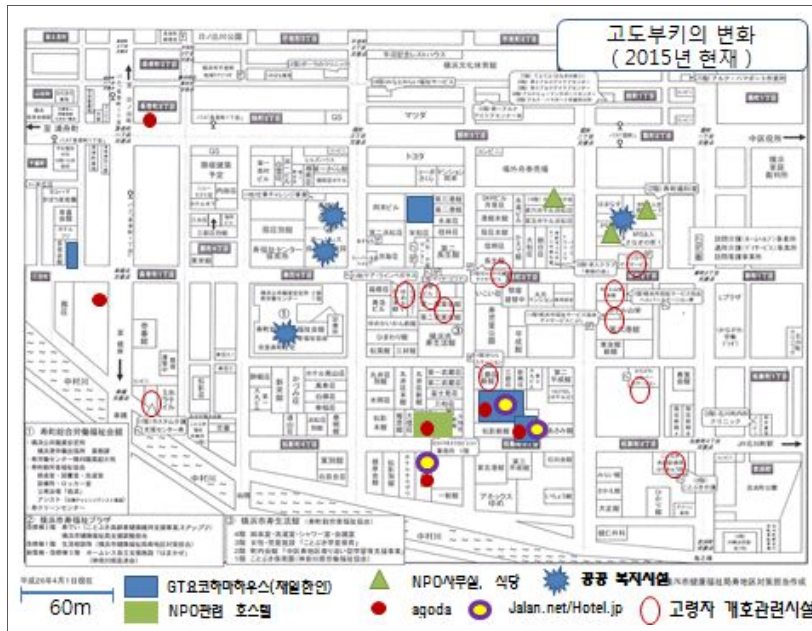


그림 3. 고도부키의 경관변화(2015년 현재)

이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와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경륜과 경마를 중개하는 모니터 앞에 모여선 모습, 어두침침한 낡은 목조 건물, 특유의 냄새, 일자리에서 돌아온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저녁시간에 활기를 띠는 선술집과 같은 요세바의 일반적인 경관은 깨끗한 비즈니스호텔식 건물과 Day-care Center 등 각종 서비스 제복을 입은 개호스텝들이 바쁜 걸음으로 다니는 모습, 노동자를 태우기 위하여 통근용 밴이 간이숙박업소 옆에 차를 대는 모습 등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고령자그룹에 의한 정기적인 마을청소로 마을의 냄새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거리에서 뒹구는 노숙자의 모습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식사광경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선술집이나 식당에서 활기차게 다른 노동자들과 섞여서 먹던 사람들이 자기 방에서 혼자 식사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가는 고령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집단에서 개인으로, 식당이라는 집단공간에서 개인 공간인 방으로, 술과 대화에서 침묵과 TV로와 같은 생활양식

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7.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배낭여행객의 유입

한때 ‘일용직 노동자의 마을’이었던 고도부키가 ‘복지 수요가 높은 마을’로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도야는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숙박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에 적합하게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TV와 냉장고를 비치할 뿐만 아니라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정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현대식으로 개축한 도야경영자 중에는 칸나이(關内), 이시가와초(石川町) 등 요코하마 주요 역까지 도보권 내에 있으면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과 같은 관광지나 변화가와 비교적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의 장점과 저렴한 숙박비를 부각시켜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인근의 제일한인 숙박업소 경영주들과 공동의 연결망을 통하여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숙박업소 안내사이트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와도 연계하여 저렴한



그림 4. 호스텔의 외관



그림 5. 호스텔 홈페이지



그림 6. 호스텔 홈페이지 한국어부분



그림 7. 호스텔 숙박객들의 기념사진

하면서 안락하게 숙박하면서 요코하마의 중심부와 도보거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과의 파티 사진 등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대응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로 ‘요코하마 호스텔’을 검색하면 쉽게 고도부키의 호스텔 숙박후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 한국어가 능통한 호텔경영자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만족한다는 후기도 눈에 띈다.

개척한 도야를 이용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은 도야의 이용자가 계속하여 감소추세로 빈방이 늘어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자하는 NPO법인인 사나기다치(さなぎ達: 번데기들)의 제안과 이에 동의하는 도야경영자가

합동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현재 고도부키에는 외국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호스텔이 4개소가 있는데 젊은 연령층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도야경영자들도 새로이 시작하려는 의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²⁵⁾ 2011년 12월 jtour의 리뷰에 의하면 ‘오픈 당시부터 현재까지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매스컴의 관심을 받아온 덕분에 여름시즌에는 가동률 70%가 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2월에 고도부키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여 2015년 2월 방문 시에는 호스텔의 수는 변함이 없었으나 젊은 연령층의 숙박객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감이 있었다. 그리고 호스텔 경영자들의 한국인에 대한 한국어 홍보도 오히려 축소되어 2012년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부각되었던 ‘채일한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한국어로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문장

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이는 하지만 대부분의 도야는 여전히 주 고객층이 고령화된,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숙박객에 대한 주의사항을 내걸고 있어 요세바 고도부키의 도야가로서의 특성을 새삼 인식하게 해준다.

8.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시가 주장한 ‘글로벌 장소감’의 인식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의 고도부키를 사례로 글로벌/내셔널 한 역사적 흐름이 구성원과 경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표출되는 로컬리티의 시공간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메시에 따르면 로컬과 장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로컬리티란 각 장소가 그 위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관계 및 사회적인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이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컬리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와 그 내부의 다양성들이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교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역사적 흐름의 상호역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고도부키는 일용직노동자의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며,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거주공간이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전 국가 혹은 국가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그림 8).

고도부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세계의 종식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쿄의 관문이면서 군수공업이 발달하였던 요코하마 일대는 폭격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다.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요코하마에는 미군정사령부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조물자의 유입 항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동시에 폐허가 된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향만노동자와 토목·건축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므로 고도부키에는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급증한 노동자들의 숙소가 급조되면서 급기야 ‘수상호텔’이라는 변종의 숙소마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재일한인의 도야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동자의 수요에 비하여 열악한 노동자 숙소/도야의 환경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불법적인 건축구조의 변경과 증축으로 인한 문제가 공공연히 야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폐허가 된 일본경제를 부활시키는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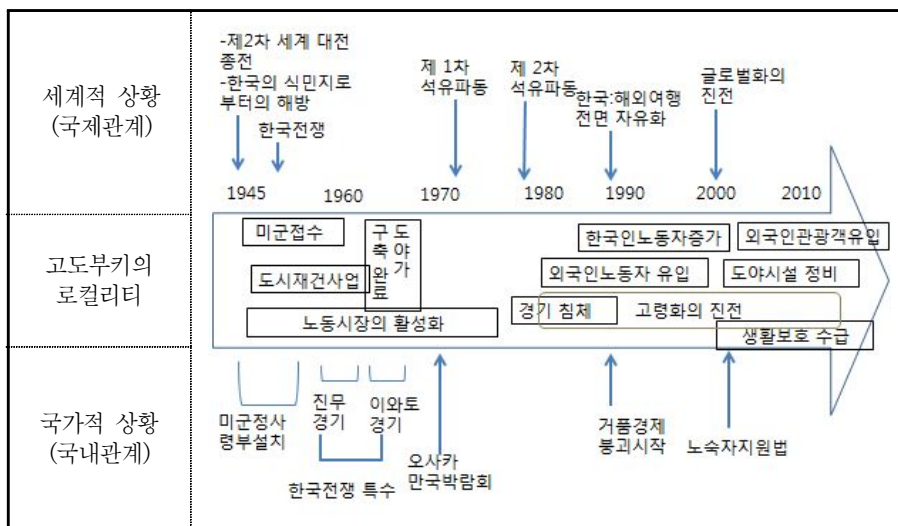


그림 8. 고도부키의 시공간 변화

으로서 작용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미군의 무기 보수 및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 일본경제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전쟁이전보다 더 급격한 성장을 유도하였다. 전후경기와 이와도 경기의 경제부흥 이후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의 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항만노동의 경우 취업현상이 일정하였으므로 고도부키는 구직과 구인을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생활장소로서의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석유파동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겪을 즈음, 요코하마항을 이용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을 통하여 알려진 요코하마항 인근의 노동시장의 존재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노동력의 유입원으로 작용했고, 이어 한국의 해외여행자유화가 198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으로부터 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 최초의 외국인을 위한 NGO단체가 만들어지고 한국인교회 설립되는 등 고도부키는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노동자들의 거리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떠나게 되었고, 고도부키는 구직자는 많으나 구인은 거의 없는, 일용노동력 고용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되어갔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숙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노숙자가 증가했고, 오랜 육체적인 노동의 결과로 인한 지체장애자도 늘어나면서 한때는 노동자의 거리였던 고도부키는 복지수요가 높은 거리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요세바 노동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2002년부터 ‘노숙자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고도부키의 고령자 중 96%가 생활보호수급자가 되면서 고도부키는 또 다시 변화한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고정적인 소득원이 생기게 된 도야경영자들은 수급자들의 수요에 맞게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고도부키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고도부키의 구성원의 특성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야 경

영자들 가운데에는 NPO단체와 협력하여 요코하마와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배낭여행객을 유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업체가 등장하여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고도부키를 방문한 결과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도야는 여전히 주 고객층이 고령화된,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어 도야가로서의 특성을 새삼 인식하게 해준다.

로컬리티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그 장소에서 펼쳐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및 과정의 교차와 상호작용이 독특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대 도시 요코하마의 일각에 위치한 고도부키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고도부키의 구성원인 노동자 한 개인 혹은 노동자 집단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와 세계의 정치·경제구조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화해가는 로컬리티 연구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본다.

주

- 1) 고도부키는 행정상의 명칭으로는 고도부키초(寿町)이나 요세바의 특성을 가지는 지역범위가 고도부키초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정확한 경계를 그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고도부키지구(寿地区)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세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고도부키초 일대를 ‘고도부키’라고 지칭하고 있어 본고에서도 ‘고도부키’로 칭한다.
- 2) 요세바는 노동시장 혹은 슬럼이나 쪽방촌과는 성격이 다른, 요세바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언어로는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표기 그대로 요세바라고 표기한다. 요세바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조현미(2000), 이혜진(2014)이 있으며, 인권단체 등에서도 요세바를 소개하는 사례들이 최근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모두 이와 같은 이유로 ‘요세바’로 표기하고 있다.
- 3) 요세바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데, 마츠자와(松沢哲成)의 정의에 따르면, 요세바란 한마디로 일용직노동력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그 장소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 4) 첫 번째 조사의 결과는 「재일동포의 집주지역형성과

- 민족정체성의 변화 - 요세바 고도부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5(1)에 발표한 바 있다.
- 5) 해당지역의 환경정화와 보안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요코하마시 슬럼대책연구회의 보고서로서, 해당지역에서 6년간 민생공장을 역임한 세리자와가 종합·정리한 보고서이다.
 - 6) 정확한 자료집 발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자료집에 게재된 인구통계를 볼 때 1980년대 중반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7) 요코하마시의 중추부는 미군의 주둔지로서, 항만시설은 보급지로서 접수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일본국내의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곡류수입업 중 전국 80%가 요코하마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芹沢, 1967, 2)
 - 8) 1945년 11월 당시, 가나가와현내의 11개 근로서(勤勞署) 통계에는 총 628,000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보고되어있다(芹沢, 1967, 2).
 - 9) 일용직노동자들의 작업은 주로 청소와 뒤처리기가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도 기지 확장 공사선박의 청소와 간단한 수리와 같은 일들로서 특별한 기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芹沢, 1967, 2)
 - 10) 일본에서는 이때의 경제부흥을 ‘조선특수’, ‘특수경기’, ‘조선전쟁 붐’ 등으로 부르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6%9C%9D%E9%AE%AE%E7%89%B9%E9%9C%80> 참조.
 - 11) 芹沢(1967)는 수상호텔의 위생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를 매개로하는 발진티푸스는 전시중이나 전후에 이르러서도 연료가 부족하여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 사이에도 유행하고 있었지만, 1950년에 한번, 시민환자가 5명이었던 것에 비교하여 일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숙사나 시설에서의 상황을 보면 11개 시설 2,234명의 수용인원 중 14.9%에 해당하는 332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13명이 사망했다”
 - 12) 요코하마시 소방국 연혁에 따르면 당일 수상호텔 전복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7명, 부상자 8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http://www.city.yokohama.lg.jp/shobo/about/ayumi/enkaku/1951.html>). 그리고 「위키피디아」, 「주간요코하마 80」 등 인터넷 매체의 「해난사고일람」에 의하면 “1951년 1월 22일 요코하마시의 오오카천(大岡川)에 떠 있는 일용직노동자용 수상호텔 전복으로 7명이 희생되었다. 정원이 250명임에도 불구하고 432명이 승선하여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 13) 1941년경부터 니혼코칸(日本鋼管)이 가와사키시 이케가미초(川崎市 池上町, 당시의 榎本3丁目)에서 군수공장의 건설공사를 할 때, 5~6채의 한바(飯場, 노동자 숙소)가 만들어져서 수백명의 노무자와 인부가 숙박하면서 공사를 담당했다. 이 때 한바의 경영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으며, 일본인노무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저임금으로 고용되었던 조선인노무자들을 대량으로 일하게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바의 흔적이 남아있었으며 그 주변에 한바와 유사한 판잣집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인마을인 이케가미지가 형성되었다(田代, 1966, 10).
 - 14) 이때 주민 중에서 가족과 어린이가 있는 사람들은 공영주택에 입주하게하였으나 입주하지 못하고 남은 주민과 단신 남성 노동자들은 고도부키로 옮겨진 다(山本, 2008, 14)
 - 15) 정식으로 건축신청을 한 간이숙박업소 제 1호는 그 이전인 1956년 4월25일로, 직업소개소가 이전하기 이전부터 고도부키 일대에 도야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야가의 형성은 직업소개소의 이전과 수상호텔의 철거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6) 수상호텔은 하천법·여관업법(가나가와현), 항만법위반(요코하마시)에 의한 공유수면 불법점거로 1959년 7월에 모두 철거되었다.
 - 17) 이들 중에서 정식으로 건축기준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것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식으로 준공확인 과정을 거쳤더라도 착공 시에는 2층으로 신청하였지만 실제로는 준 방화지역에는 금지되어있는 3층으로 건축하고, 나아가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층으로 증축하는 사례들도 늘어났다. 또한 준공 후에 방 한 칸을 두 칸으로 분할한 다던가, 극단적으로 좁은 방, 금지되어있는 2층 침대를 만들어 수용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업자들도 증가하여(조현미, 1998, 140), 노동자들의 거주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었다.
 - 18) 일본만국박람회(日本万国博覧会, Japan World Exposition)는 1970년 3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 183일 동안 오사카부(大阪府)의 스이타시(吹田市) 센리큐료(千里丘陵)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박람회로 77개국이 참가하여 당시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했다. 약칭 오사카 만박(大阪万博), 영어로는 EXPO'70으로 불렸다.
 - 19) 1965년 이후 시작된 항만노동의 기계화로 고도부키 노동자의 취업직종도 토목건축노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 2014).
 - 20) 고도부키의 도야에서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해서 살펴보면, 1988년에 53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 1083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그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현재 52명으로 나타난다(요코하마시 건강복지국 생활복지부, 2014). 고도부키의 외국인은 압도적 다수가 한국인이었으며 그다음이 필리핀인, 소수의 태국인으로 구성되었다.
 - 21) 가라바오회 홈페이지. 2015.12.30. 검색
<http://homepage3.nifty.com/kalabaw/about.html>
 - 22) 1990년대 말 이후 휠체어 탄 노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이기 시작. 고도부키 거주 장애자 398명(60% 이상이 60세 이상), 1급 28%, 2급 21%. 타지역보다 중증비율이 높다.
 - 23) 10년간의 기간으로 한정된 법이었지만 해당기간인 2012년에 5년간 연장되었다. 동 지원법은 생활보호수급자의 거주지 조항 삭제로 노숙자의 주거안정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위의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노숙상태의 사람들이 거리생활에서 탈피하고

-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립지원 시설의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고도부키에 설립된 하마카제(はまかぜ)가 그 예로서, 노숙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항구적인 건물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특수한 건물이다.
- 24) 2013년 현재 고도부키의 60세 이상 인구 4388명 중 생활보호 수급자는 96%인 4233명이다.
- 25) 2012.3 도야경영자와의 면담에 의함.

문헌

류지석, 2009, 로컬리티를 위한 시론, 로컬리티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19-40.

린다 맥도웰지음, 여성과 공간연구회 옮김,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McDowell, Linda,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Polity Press).

이유혁, 2015, 트랜스로컬리티의 개념에 대해서-트랜스내셔널리즘의 차이와 개념적 응용성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13, 265-275.

임승연, 이영민, 2011, 오사카 한인타운의 장소성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관계적 특성연구, 로컬리티인문학, 5, 87-123.

장세용, 2014, 로컬, 주체, 타자, 로컬리티 인문학, 11(4), 279-288.

장세룡, 2015,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는 로컬시간과 로컬리티의 시간성,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 43, 6-7.

조현미, 2000, 재일동포의 집주지역형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요세바 고도부키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5(1), 141-157.

조현미, 2013,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94-513.

이혜진, 2014, 이주과정을 통해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마 고도부키초의 한국인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7, 213-253.

梶村秀樹, 1981, 在日朝鮮人の生活史, 神奈川県, 神奈川県史 各論編 I、政治・行政.

川添慶一郎, 1993, 寿から見た外国人労働者. 神奈川県在日外国人問題研究所: 『在日外国人・ともに暮す・

かながわ ; もっとあなたに会いたい』(財)神奈川県国際交流協会, 12-13.

田代国次郎, 1966, 都市の福祉問題-川崎市のドヤ街とスラム街の実態, 福祉問題研究, 童心社, 1-31.

牛草英晴, 1993, 釜ヶ崎一人と人生, 釜ヶ崎資料センター編, 釜ヶ崎・歴史と現状, 三一書房, 113-165.

寿・木曜パトロールの会, 1989冬・寿からの報告, 日本寄せ場学会, 寄せ場, 3, 116-126.

寿地区活動関係資料, 寿センター, 1980년대 중반(추정)

芹沢勇, 1967, ドヤ街の発生と形成-横浜埋地(西部の町)について, 横浜市総務局行政部調査室, 横浜市.

高橋徹, 1998, 寿町と中村川, 神奈川のなかの朝鮮編集委員会, 神奈川のなかの朝鮮, 石書店, 66-79.

山本薫子, 2008, グローバル化する大都市インナーエリア 横浜・寿町と外国人, 福村出版.

横浜市健康福祉局生活福祉部, 平成26年度(2014年)寿福祉プラザ相談室一業務の概要.

Massey, D, 1991,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267-281.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280.

Timothy S. Oakes/Patricia L. Price, 2008, *The cultural geography reader*, Routledge.

(財)寿町勤労者福祉協会 <http://www.yokohama-kotobuki.or.jp/>

NPO법인 사나기다치(さなぎ達) <http://www.sanagitachi.com/>

요세바학회 <http://www.jca.apc.org/nojukusha/gakkai/>

• 교신 : 조현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hmjo@knu.ac.kr, 전화: 053-950-5228

Correspondence :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mjo@knu.ac.kr, Phone: 82-53-950-5228

(접수: 2016.02.05, 수정: 2016.05.10, 채택: 2016.05.20)